

## 야카게의 산성

야카게는 에도 시대(1603~1867)에 역참 마을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구 산요도에서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. 이 도로는 교토 등의 옛 수도와 서일본을 잇고 규슈 지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. 따라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경쟁하던 무장들이 영토 확장 및 방어를 위한 싸움에서 구 산요도와 같은 중요 간선도로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야카게 지역은 전략적으로 감시가 중요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성에 이상적인 산악 지형이었습니다.

산성이란 중세 시대에 세워진 성곽으로, 산 지형을 활용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무기 및 병사를 준비해 두기 위한 망루 및 건물이 있었습니다. 또한 방어를 위해 더 영구적이고 정교한 구조로 지어진 후세의 성에 비해 산성은 심플한 목조 건물로, 농성에 대비하여 물자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창고도 있었습니다.

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산성 중 하나가 1205년 쇼 이에나가가 지은 사루가케 성입니다. 쇼 이에나가의 일족은 무공 포상으로 이 지역을 하사받았는데, 멀리 떨어진 무사시 지역(지금의 도쿄도 및 주변 현의 일부 지역)의 우군은 왕래가 잦은 이 지역을 감시하에 두기를 원했습니다. 사루가케 성은 그 목적을 위해 세워진 성입니다. 성은 오다 강 주변의 산 위에 성이 있으며 건너편 강가에 있는 구 산요도를 가까이에서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. 험준한 지형은 대부분의 산성에 있어 중요한 방어 조건이었는데 사루가케 성이 세워진 산은 매우 험준하여 지금도 밧줄 없이는 오를 수 없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. 무거운 무기를 든 갑옷 차림의 무사들에게는 성까지 도달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. 1571년까지 쇼 가문은 사루가케 성을 15대에 걸쳐 잘 지켜냈습니다. 그리고 4년 후, 서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묘(영주) 가문인 모리 모토키요(1551~1597)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.

모토키요는 농성전에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술에도 대응 가능한

본거지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마을과 도로,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우스야마 산으로 지역 모리군을 옮겼습니다. 자우스야마 산성은 1584년 완성되어 1587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가 적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모토키요를 규슈로 파견할 당시의 거점이 되었습니다.

모리 가문은 혼슈(일본을 구성하는 섬 중 가장 큰 섬) 서부의 대부분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600년의 결정적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하면서 야카게 지역은 이들이 잃은 영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 후 비교적 평화로웠던 에도 시대에 막부는 성의 수를 제한하였고 야카게의 산성을 비롯한 일본 전국의 산성은 버려지거나 헐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날 사루가케 성터는 여전히 험준한 산에 있으며 산길에서는 성 돌담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. 자우스야마 산성 터는 야카게초를 내려다보는 조용한 공원이 되었습니다.